

# 전북 고창 만돌마을



송 화 섭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 사계절 관광은

갯벌체험 정도가 아니라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체험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마을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조성해야 한다.

## I. 만돌마을은

만돌마을은 고창군 심원면 해안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넓은 갯벌이 드러나고, 다시 들어오면 망망대해가 연출된다. 만돌마을은 서해에서 줄포만으로 접어드는 초입에 위치한다. 줄포만은 부안군의 변산과 고창군의 선운산을 양쪽에 두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줄포만과 연결된 인천강의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선운사 앞을 경유하여 고창군 아산면을 휘돌아 감고 죽림리 고인돌공원 앞을 향하여 하천과 연결되어 있다.

고인돌공원에서 바라보면 그 물줄기는 고창읍 뒤쪽의 방장산 자락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물줄기는 인천강으로 이어진다. 인천강은 해륙(海陸)문화의 젖줄이다. 옛날에는 물길 따라 문물이 들어오고 나갔던 것이다. 해륙이란 바다와 육지를 연결시킨 강줄기가 교통의 핵심인데, 고창에서는 인천강이 그 역할을 한다.

줄포만에는 안쪽에서 바라볼 때, 내죽도와 외죽도가 있다. 외죽도는 만돌마을과 지근거리에 있다. 바

다에서 줄포만으로 들어서면 첫 번째 닿는 기항지가 외죽도이다. 내가 컨설팅 하는 마을이 만돌리라는 사실을 알고서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다. 만돌마을에서 어촌체험객들이 갯벌버스를 타고 가는 곳이 죽도다. 죽도는 서해상에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사기록에 등장한다. 역사기록으로 죽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 정말 만돌마을에 가보면 코앞에 죽도가 있다. 꼭 가보고 싶은 섬 가운데 하나가 죽도였다. 죽도의 역사기록은 중국역사서에 등장한다.

죽도는 송나라 사신 서공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나타난다. 서공이 중국 절강성 정해현 매잠에서 출항한 뒤에 10일 만에 죽도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있다. 서공이 쓴 책에 죽도는 “숲의 나무들은 푸르고 무성하다. 흰 돌로 된 암초 수백덩어리는 흡사 쌓아놓은 옥과 같다. 마침 추석 보름달이 떠올랐을 때에 밤은 고요하고 물결은 잔잔한데 밝은 노을이 비치고 비끼 달빛이 천 길이나 되었다. 섬과 골짜기와 배와 물건들이 온통 금빛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춤추고 그림자를 희롱하며, 술을 따르고 피리를 부니 마음과 눈이 즐거워서 앞에 먼 바다가 놓여있는 사실도 잊을 정도였다”라고 아름다운 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돌마을은 죽도를 갈 수 있는 마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섬은 아직도 베일에 감춰져 있는 듯하다. 서공의 책

에 기술되었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라면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섬으로 조성될 것을 기대해본다.

만돌마을은 2003년에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고, 어촌체험은 주로 개별에서 바지락, 생합, 가무락, 동죽을 캐고, 어망으로 고기 잡는 일이다. 어촌체험마을은 주로 어촌계(계장:김근욱)에서 주관한다. 어촌계원수는 160여명이 이른다. 만돌마을은 주민들이 합심협력하여 어촌체험마을을 가꾸려는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어촌체험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한 두 대씩 주차장에 주차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빈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만돌마을은 단순히 어촌체험마을로서 관광객이 찾는 게 아니라 주변의 관광여건이 매우 좋다. 고창읍에 들어서 아산면 방향으로 돌아들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 동백꽃이 아름다운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서정주문학관, 인촌 김성수 생가 등이 굴비 엮여지듯이 강 따라 길 따라 늘어 선 모습이다.

그 길을 따라 십원면으로 들어서면 줄포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돌출해안의 끄트머리에 동호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고창골프장을 지나 소금밭 염전을 끼고 돌면 만돌마을 후문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아름다운 해안드라이브 관광코스를 가진데다 아름다운 비경의

죽도를 가졌으니 어찌 어촌체험마을로 족하겠는가. 아마도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 매년 마을방문객의 숫자를 기록 갱신하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매년 만돌마을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숫



〈십원면 정경〉



〈만돌갯벌마을체험장〉

자를 기록 갱신하는 기념비(紀念碑)를 일만 개 세울 때까지 어촌체험마을이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을의 지명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만돌(萬突)이란 '만개의 굴뚝이 조성될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들른 술사가 마을의 지세를 보고 붙여준 지명인데, 매년 하나씩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만년동안 어촌체험관광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마을이라는 사실이다. 서궁이 죽도에 정박하고서 아름다운 비경에 감탄한 것도 죽도가 관광의 매력을 가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관광객들은 만들마을을 찾게 될 것이다.

## II. 컨설팅 방향

그렇다면 어촌체험마을을 통하여 다져진 관광인프라를 더욱 확대하여 만들마을을 중심으로 해양관광타운을 만들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만들마을 주민들이 아니라 고창군과 전라북도, 더 나아가 국가적인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들마을은 이러한 관광자원의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만들마을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럼 만들마을을 어떻게 관광지로 조성해야 할 것인가. 요즘 농어산촌 마을들이 정부 지원 하에 녹색마을,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마을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일단계로서 만들마을은 현재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만큼 홍보차원에서 갯벌체험을 하는 체험관광객을 맞이하여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어촌계원들이 밥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일과를 소화하고 있다. 줄포만



〈갯벌버스〉

의 넓은 갯벌은 어부들에게 어로활동을 벌이는 생업의 무대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갯벌속에서 바지락과 조개를 캐는 재미있는 체험장이기도 하다. 회색빛 갯벌속에서 호미로 긁어 캐내는 바지락은 어린이들에게는 노란 황금으로 보일 수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것이 바지락을 캐는데 몰입시키는 매력일 수 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평야보다도 드넓은 갯벌에서 공차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갯벌버스를 타고 다니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효과도 있지만, 부모와 함께 갯벌에서 바지락 캐는 일에 더 몰입해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어린이들은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 다양한 사고와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체험학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지락은 단순히 생물이지만, 황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재화로 보일 수도 있고, 장난감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좋은 체험학습의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어촌체험마을은 주민들이 오랜 생업활동의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갯벌의 무궁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보다는 어민들이 체험하였던 자연적응 방식, 그 속에서 생업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문화를 보고 배우는 것도 소중할 것이다. 주민들끼리 어장갯벌을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미풍양속을 배우는 것도 어촌체험마을에서 볼 수 있는 가치일 수 있다.

이단계로서 여름철 이외에 봄, 가을, 겨울에도 관광

객이 찾아오는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는 일이다. 사계절 관광은 갯벌체험 정도가 아니라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체험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마을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조성해야 한다고 몇 차례 역설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어촌계 주민들도 만들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단계이고 힘이 약하다. 그렇지만 어촌계원들의 열정에서 관광지로 도약하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마을주민가운데 약 10여명이 어촌체험마을 드림팀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는 데에서 그 희망을 읽을 수 있었고, 컨설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보았다.

만들마을을 관광지로 도약하려는 컨설팅의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만들마을 어촌계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머리 속에는 벽화그리기와 풀장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이 고민이었다. 어촌계 주민들은 이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마을광장(회관 앞)에 설치된 차단벽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컨설티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길이 약 50여 미터 높이 5미터의 차단벽으로서 그곳에 용궁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만들마을을 찾는 어린이들이 단순히 체험마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용궁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어촌계원들은 아크릴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채색비닐을 오려붙여서 장기간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색은 일단 물감을 벽에 칠해야 한다는 공해적 요인이 있어서 색비닐을 오려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컨설티어는 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컴퓨터로 용궁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출력기를 통하여 채색비닐로 그림을 떠내는 방식이다. 체험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용궁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이 용궁세계로 들어간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였다. 어촌계원들은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의 그림을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이 작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만들마을을 찾아와 바닷가에 간다는 체험보다는 용궁에 찾아가 용왕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내는 벽화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용궁이미지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어촌체험관 뒤쪽에 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어촌체험관 뒤쪽 넓은 공지(현재는 논으로 사용)를 이용하여 연꽃을 재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용궁에는 항상 연꽃이 피어있다. 실제 바다에는 연꽃이 필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궁의 상징적인 꽃은 연꽃이다. 컨설티어는 어촌체험관 뒤쪽 3필지 정도의 넓은 논에 연꽃을 심을 것을 제안하였다. 용궁벽화와 연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 마을이 용궁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잊점이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만들마을이 용궁마을이라는 관광자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연꽃세계와 용궁 같은 연상이미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지에서 수확하는 여러 생산물(연잎, 연꽃, 연밥, 연근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연전문 음식을 개발한다면 어촌체험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상품 판매를 하여 농가소득을 배가시키는데 아주 좋은 자연생태자원이라고 컨설팅 해주었다. 그리고 연꽃이 피는 시기에 만들마을은 용궁의 이미지를 선양하여 관광객 유치와 어촌체험마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심원면, 복분자 원산지〉

여기에서 상상의 세계 용궁을 구현한 수 있는 자원을 만들마을은 갖고 있다. 외죽도가 용궁의 이미지를 갖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용궁은 상상의 공간이지만, 죽도는 만들마을에서 바다라 보이는 섬이기 때문이다. 죽도를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마을로서 관광지로 가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직 죽도의 활용도 단순히 갯벌버스를 타고서 어촌체험객을 인도해주는 단순한 섬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인데,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그 죽도를 용궁의 세계로 꾸미자는 제안이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해상항로를 이용하여 건너온 서궁 사신단이 노래한 죽도를 꼭 가고 싶은 섬, 용궁으로 조성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죽도는 단순히 서궁이 와서 정박하였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서 관음선이 죽도에 들어오는 관음연기설화도 깃들여 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전설을 스토리텔링하여 개발한다면 죽도는 “아름다운 전설의 섬”, “용궁 같은 세계”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자 만들마을에서 돌아오던 길에, 고창문화원 이기화 원장을 만나서 외죽도에 관하여 관광지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더니, 매우 반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 고창군수에게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해주었다.

컨설터어는 외죽도가 만들마을에 속한다는 점을 심

분 활용하여 가고 싶은 섬, 고창에 오면 꼭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소망하는 대로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도를 죽기 전에 한번은 꼭 가보아야 할 ‘아름다운 전설

의 섬’으로 가꾼다면 만들마을은 사계절 관광지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죽도를 만들마을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어촌체험마을의 시너지 효과가 무척 클 것이다. 죽도의 관광지 개발은 마을 자체적 사안이 아니라 고창군에서 적극 개발하여 해양관광자원화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대상이다. 삼단계로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일이다.

### Ⅲ. 관광상품 개발과 제안 사항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절반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루 일정으로 어촌체험방문객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아직은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 편의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어촌계에서는 만들펜션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만들펜션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해야 할 하드웨어라는 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것도 한계다. 마을에서 횡집을 운영하거나 간이음식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도 조성되어야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어촌계와 무관할 수 있겠지만, 만들마을의 관광지

조성사업 차원에서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컨설티어는 마을전문음식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광객에게 농가소득 차원에서 음식을 조리 가공하여 팔수 있는 음식상품을 개발하여 마을 특산음식을 어촌계의 개인가정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여 반응을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마을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체험객들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만들마을의 현장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여름철 어촌체험객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추어서 만들특산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음식의 재료와 음식상품, 그리고 가정음식점을 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하는 회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주민회의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을과 겨울에는 갯벌 체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음식상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어촌체험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만들특산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지는 것이다.

겨울철에 만들마을의 인근 해역에서 많이 채집되는 해양자원은 김과 굴이 대표적이다. 내죽도는 굴밭이 있을 정도로 굴 생산량이 많은 곳이다. 굴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부터 제 맛을 내기 시작한다. 굴과 조화를 갖춘 해초가 김이다. 만들마을에서 생산되는 김을 상품으로 개발한 복분자김이 있다. 이 김은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 성분과 김을 조합시켜 만든 것이다. 그만큼 만들마을의 김 생산량은 음식상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김과 굴을 조합시켜 만든 굴김국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해초 가운데 매생이를 재배하여 김과 매생이를 국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굴김국과 굴매생이국을 만들마을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고창에서 복분자와 장어는 대표적인 관광식품으로 소문나 있다. 이제 고창이 가진 해양성을 활용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만들마을의 굴김국, 굴매생이국을 웰빙식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컨설티어는 이 굴김국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하여 상품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서 상품개발에 착수하였다. 만들마을의 특산음식이 상품화하여 고창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러한 특산품 외에 갯벌 체험하러 온 어린이들이 여름철 갯벌체험 및 방문관광객들이 체험을 마치고 기념될 만한 상품과 기념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 만들마을에서 채집되는 관광기념자원은 바지락과 조개인데, 관광상품으로 마땅하게 개발할 소재가 없다는 것이다. 컨설티어는 9월중에 마침 일본 오키나와에 축적자원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오키나와는 섬 문화가 발달하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이다.

오키나와의 관광지를 탐방하던 중에 조개껍질에 양초를 색깔별로 만들어 조개껍질에 촛불을 켤 수 있는 캔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이 조개양초를 벤치마킹하여 만들마을에 제시하였다. 조개껍질을 수집하고 양초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여름 어촌체험객들이 현장에서 주운 조개껍질에 양초를 부어 조개양초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촛불을 만드는 담당자를 두어 다양한 조개껍질에 양초를 넣고 그림을 그려 넣어 색상이 화려한 조개양초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어촌체험마을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는 종합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어촌체험마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하여 어촌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농어촌은 이제 생업만을 위한 일차적인 생산 공간이 아니라 체험과 관광, 문화, 자연생태계가 조합된 종합관광테마 마을로 조성하는 일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은 컨설티어들이 해야 할 일이다. 